‘새해 福 많이 받쥐~’ …경자년 쥐 마케팅

광주은행 ‘해뜨쥐적금’ 출시
롯데 광주점 순금 이벤트
이마트 ‘경자’ 고객 대만 여행
쌍용차 7% 할인 세일페스타
11번가 쥐띠 고객 20% 할인

‘하얀 쥐의 해’로 알려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쥐 특수’를 잡기 위한 마케팅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은행은 쥐띠 해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2배로 주는 ‘2020 해뜨쥐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020해뜨쥐적금은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1.3%이지만, 쥐띠이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고 연 3.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 중 추천코드를 공유한 계좌 수에 따라 연 0.2%~0.8%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하는 이벤트도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 가운데 주민등록상 ‘쥐띠 해’ 출생자는 해당 우대금리의 2배인 연 1.6%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년 이내 5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박기원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경자년을 맞아 출시한 ‘2020해뜨쥐적금’을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가입하면서 우대금리도 받고, 2020년을 계획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얀 쥐 모양을 본뜬 상품들도 각 매장 진열대를 채우고 있다.

㈜광주신세계 푸드플라자에 있는 ‘메나쥬리’와 ‘루시카토’ 등은 커다란 귀 모양이 특징인 케이크를 연초부터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골든듀’ 매장은 쥐 그림이 새겨진 24K 순금(100g), 골드바(37.5g) 2종, 펜던트(3.75g)를 선보이고 있다. 쥐 캐릭터를 활용한 출산 선물도 선보인다. 같은 매장 유아용품점은 경자년 출산을 앞둔 가정을 위한 귀여운 쥐모양 출산용품을 내놓았다.

이마트는 1월 동안 매일 2020명에게 신세계포인트 1000점을 주는 ‘2020년도 새해 福 많이 받쥐!’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이름이 ‘경자’인 고객을 대상으로 15일까지 추첨을 통해 대만 여행을 보내준다.

쌍용자동차가 새해를 맞아 2020명에게 최대 7% 할인해 주는 ‘2020 세일페스타’를 실시한다. 쌍용차는 개별소비세가 환원된 1월에도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가격혜택(1.5%, G4 렉스턴 3.5%)을 유지한다. 아울러 선착순 2020명에게 최대 7% 할인(일부 모델)하는 ‘2020 세일페스타’를 시행하고, 7년 이상 노후차 보유 고객에게 전 모델을 대상으로 30만원 특별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업계도 쥐 마케팅으로 분주하다. 11번가는 이달 한 달 간 ‘럭키 마우스’ 행사를 연다. 매일 오전 11시마다 쥐띠 고객 전용 20% 할인(SK페이 전용, 1만원 이상 최대 5000원) 쿠폰을 선착순 2020명에게 발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나연
아울렛 수완점장 이충열

나연 점장

이충열 점장

롯데백화점 광주점 신임 점장에 나연(53)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상무)이 임명됐다.

롯데백화점은 2020년 임원 보임 및 점장에 대한 10일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에는 나연 경영지원부문장이 부임한다. 나주 출신인 나 신임 점장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본사 구매팀장, 롯데백화점 평촌점장, 롯데몰 동부산점장,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했다.

내부에서 나 신임 점장은 롯데백화점 핵심 영업점 점장을 맡아 온 ‘영업통’으로 꼽힌다.

신임 롯데아울렛 수완점장에는 이충열(49) 롯데아울렛 광명점장이 임명됐다.

담양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롯데아울렛 이천점장과 광명점장을 지냈다.

이 신임 점장도 롯데아울렛 점장으로 6년 이상 역임한 아울렛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 디지털프라자 20주년 감사 대축제 삼성전자가 디지털프라자 탄생 20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전국 420여개 매장에서 ‘고객 감사 대축제’를 연다. 국내 가전 유통시장을 선도해 온 삼성 디지털프라자는 2000년 출범해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다. 행사 기간에 인기 제품 모델을 구매하면 품목에 따라 최대 130만 포인트를 받는 등 각종 포인트와 사은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

“개인·법인사업자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호남 69만여명 대상…광주국세청 “탈루 혐의 철저 검증”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전북지역 신고 대상자는 69만6000명이며, 신고 뒤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실적이다. 법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9만6000명으로, 전년 확정신고 인원 66만3000명보다 3만3000명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9만4000명, 개인사업자 일반 39만8000명, 간이사업자는 20만4000명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광주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광주와 전남·북 45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환급신청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급적 서둘러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86.45 (+35.14)	↑ 금리 (국고채 3년)	1.42 (+0.05)
↑ 코스닥	666.09 (+25.15)	↓ 환율 (USD)	1159.10 (-11.70)

지난 8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마린파크 애시앙’ 견본주택에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부영주택 제공〉

여수 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청약 최고 53대 1

부영, 1순위 성공 마감
14~15일 당첨자 발표

㈜부영주택은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마린파크 애시앙’ 1·2단지의 1순위 청약을 성공리에 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1054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웅천지구 중심 입지라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끌어 청약 성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마린파크 애시앙’ 1·2단지 청약 결과, 1단지는 총 353가구 모집(특별공급 255가구 제외)에 1만3822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단지는 총 260가구(특별공급 186가구 제외)모집에 1만2598명이 청약해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2단지 84㎡ B타입으로 29가구 모집에 1551건이 접수돼 무려 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4일, 2단지 15일이며, 계약은 29~31일 사흘간이다. 입주는 2022년 4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에 방문한 박모(55) 씨는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하고, 향후 집값에 대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만큼 청약에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여수에서도 인기 택지지구로 손꼽히는 웅천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4베이 혁신설계와 팬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춘 것이 수요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웅천에서 입주를 시작한 단지 가격이 평당 11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 메리트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린파크 애시앙’은 여수 웅천택지지구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대 25층, 18개 동, 전용면적 84㎡(A,B,C) 단일면적 총 1054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 판상형 위주의 4베이 혁신설계가 적용돼 채광·통풍이 좋고, 교육여건과 교통여건 등 생활여건도 우수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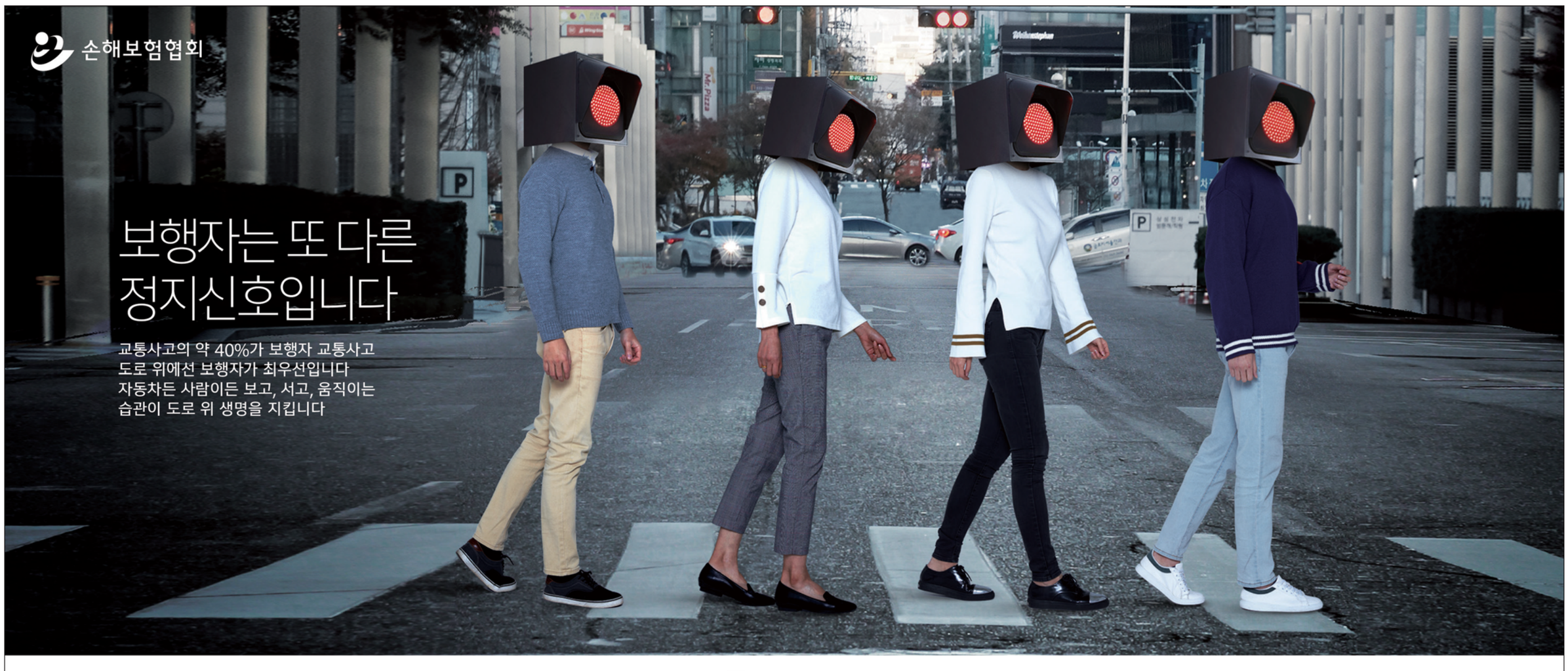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서 주택청약 받는다

부적격 당첨 줄어들 듯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할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관보 고시 등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